

‘나’를 변화시키는 어린 왕자 인문 여행

우리 마음속 어린 왕자

“우리 영혼은 별에서 와서, 지구에서 살다, 죽어서 다시 별로 돌아간다.”
플라톤, 『티마이오스』

마음의 별 이야기 『어린 왕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미확인물체 기사를 소재로 제작되어 2013~2014년에 걸쳐 28.1%의 시청률을 올리며 방영된 21부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My Love From the Star)는 시청자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별을 심어 놓은 듯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어린 왕자와 장미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들 그리고 지구 방문 후 고향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의 스토리텔링 구조 속에 펼쳐지는 광활한 하늘과 별과 바람 장면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일깨우며 국경을 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어두운 밤일수록 빛나는 별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이후 후기 구석기 시대 빙하기를 살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동굴 벽에 별을 새기기 시작하였다. 조르쥬 바타유 Georges Bataille가 예술의 탄생으로 정의한 라스코 동굴 벽화의 직녀성, 견우성과 독수리자리 알테어성, 영일 칠포리 암각화와 한반도 곳곳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들, 칠성각 벽화로 남은 북두칠성, 빈센트가 「론 강 위의 별 밤」에 수놓은 북두칠성 등…

어린 시절의 친구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별에 담은 운동주의 「별 헤는 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품으로 형상화한 별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다. 노란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미지로서의 빈센트의 별, 세상의 이타적 무관심을 열어 보이는 시어로서의 운동주의 별에서 보듯 예술가들은, 어린 왕자처럼 죽어서야 도달할 수밖에 없는 별을 친밀하고 낮은 회화적 이미지로 형상화해 왔다. “평화로운 죽음은 별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한 빈센트처럼 생텍스(생텍쥐페리의 애칭)는 『어린 왕자 Petit Prince』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다. 해가 떴을 때 그의 몸뚱이를 볼 수 없었으니까. 그리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었지…그래서 밤이면 즐겨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마치 오억 개의 방울 같은 별들…”

예술가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별의 영향은 대단하다. 모 제약회사의 간 기능 개선제 이름으로 익숙해진 ‘큰곰자리 Ursa Major’, 모 제과회사의 캐릭터로 익숙한 ‘오리온성운 Orion Nebula’, 휴대폰 이름으로 낯익은 ‘직녀 Vega’ 등 많은 히트 상품, 연예인과 스포츠인 이름에도 별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러한 별들은 고대 이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술적 성찰을 이끌어 왔다. 그리스 신화의 아홉 뮤즈 가운데 천문의 여신 우라니아 Urania가 등장하여 시와 예술을 주도하고, 현대에 이르러 일제하 운동주 시인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쓰고, 같은 무렵 독일의 지배 아래에 있던 프랑스 작가 생텍스가 『바람과 모래 그리고 별 Wind, Sand and Stars』(『인간의 대지』)을 쓴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리

고 운동주는 마음의 고향 順伊의 별로, 생텍스는 자신의 고향 소행성 B612로 성스럽게 귀환하였다.

생텍스는 1944년 7월 31일 8시 30분 그르노블-안시 지역 정탐 명령을 받고 미국 쌍발기 'P-38 라이트닝'을 개량한 정찰기에 올라 코르시카 보르고 기지를 이륙하였다. 당시 그는 신종 비행기 조종에 미숙하고 마흔네 살로 연령도 초과한 상태였지만 많은 동료들의 만류에도 탑승을 자원하여 정찰에 나섰다. 지중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생텍스는, 당시 많은 독일군 비행사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소설을 읽고 감동하여 비행사 꿈을 이룬 독일군 호르스트 리페르트 [Horst Rippert](#)의 기총 사격에 격추당해 지중해 추락하여 장렬히 전사하였다. 친일 전향을 거부한 운동주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 7개월 전의 일이다.

앙투안느 드 생텍쥐페리 [Antoine Marie Jean-Baptiste Roger de Saint-Exupéry](#)(1900.06.29.~1944.07.31)는 프랑스의 시인·소설가·시나리오 작가로서 공군 비행사, 포로협상가, 착륙장치개발자, 오페라 대역 가수였다. 그는 북서 아프리카·남대서양·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 야간 비행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비행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진실을 별에서 찾은 생텍스는 그가 찾은 진실로서의 '사랑과 우정의 길들임'이라는 소박하면서도 근원적인 명제를 어린 왕자의 여행기로 풀어냈다.

이 작은 이야기 『어린 왕자』를 두고 하이데거는 1949년에 출간된 독일어본 발문에서 “20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실존적 저술”, “모든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라고 평하였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마지막 장 「어린 왕자에게 부치는 편지」에서 『어린 왕자』를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으로 정의하며, “누가 나더러 지목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어린 왕자 인문 기행>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낳은 『어린 왕자』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 왕자의 지구 여행기

『어린 왕자』는 두 사람의 여행기이다. 하나는 선재동자처럼 ‘진실을 찾아 나선’ 어린 왕자의 구도 여행이고, 또 하나는 어린 왕자의 기원을 찾아가는 작가 생텍스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는’ 마음 여행이다. 비행사의 분신이기도 한 어린왕자는 보살의 경지에 이른 지혜로운 여우와 뱀과의 낯선 만남을 통해 우정과 사랑에 이르는 마법의 지혜를 얻어 자신의 별로 돌아간다.

화자인 비행사는 하늘에 놓인 새로운 길을 탐사하고자 비행을 시작하였으나 사막에 불시착하여 신비한 어린아이를 만나 홀로 여행 중인 이 아이의 여행담을 들으며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어린 왕자의 기원과 신비를 풀고 일상으로 귀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찾아 구도의 여정을 나선 어린 왕자 그리고 이 어린 왕자의 정체를 탐구하는 어른의 여정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두 인물은 헤어지지만 서로 길들어 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자기별에서 지구의 꽃과 우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비행사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밤하늘 별들의 웃음소리와 도르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듣게 된 것이다.

사실 어린 왕자는 누구나 그러하듯 순수하기만 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사랑을 모르던 그는 자신을 까탈스럽게 대하는 장미가 귀찮아져 새로운 친구와 일자리를 구하고 깨달음도 얻을 겸 여섯별을 유람한다. 우스꽝스러운 왕, 허영장이, 술아저씨, 사업가, 지리학자를 만나 실망

하나 다행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가로등지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하지만 정직한 대화가 불가능했기에 이 어른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었다.

마지막 별 지구에 도착하여 처음 만난 뱀은 어린 왕자를 만나자 그 순수함을 보고 어린 왕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보내주겠다고 다시 찾아오라 한다. 꽃은 어린 왕자에게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제자리를 맴돌며 고통스러워한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모래와 바위와 눈길을 헤치고 마주한 정원에는 무려 오천 송이의 장미가 만발해 있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뿐인 꽃을 갖고 있어 부자라고 믿었던 어린 왕자는 그만 장미 한 송이와 세 개의 화산으로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만 풀밭에 누워 울고 만다.

거창하고 심오한 것을 찾아 위대한 왕자가 되고자 했던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장미에 바친 시간 때문에 그 장미가 그토록 소중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나로 변하고 장미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여우와의 이별은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순진하고 연약한, 보이지 장미를 찾아 새로운 여행을 시도한다. 무거운 몸뚱이로는 너무 힘들고 먼 여행이다. 어린 왕자는 뱀의 호의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몸을 버리고 비행사가 그려준 양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섯 소행성과 지구로의 여행은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생텍스의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여 생텍스가 사투 끝에 구조되었다는 것뿐이다. 사막 한복판에서의 견딜 수 없는 고독과 갈증과 사투를 벌이던 생텍스의 마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생텍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진실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마음으로 본 결과 자신은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며 우리는 그 관계의 매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쳤다. 아저씨 생텍스가 어른이라는 자신의 껍데기 속에 잠자고 있던 마음속의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성공에 전념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랑도 우정도 없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 것인가.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돈으로 깨우침을 살 수 없듯이……

길들임과 우정

“너는 관계의 매듭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너의 관계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너의 관계는 너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생텍쥐페리, 『성채』

생텍스는 우정을 위해서는 서로를 길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길들이다’는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혹은 ‘행동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을 지도하여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질드러다’로 썼다. 세조의 불경언해본들에 그 용례가 자주 나온다.

- 조어(붓다)는 길들이는 사람이오. - 『월인석보』(1459) 9:11
- 남염부제 중생은 성품이 강해 질드려 행복하기 어렵거늘. - 『월인석보』(1459) 21:116
- 그 마음을 질드려 큰 지혜를 가르치시니. - 『묘법연화경언해』(1463) 2:252

‘길들이다’라는 말은 요즘 와서 순응적인 인간의 태도를 의미하는 야유의 이미지도 지니게 되었지만 원래 우리말에서는 자연 상태의 인간의 마음을 순화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지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어 ‘길들이다 apprivoiser’(to tame)는 동물을 ‘길들이다’ 혹은 ‘서로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생텍스도 마음속 순수한 심성을 찾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여 우리의 ‘질드리다’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의 화두로 우뚝 선 길들이미란 사실 관계맺음으로서의 우정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늑대와 뱀이 들려준 사랑과 우정이라는 길들이미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순수한 아이가 되어 과거의 몸을 죽이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던 것이다. 이기적이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자신을 기다리는 장미 찾아 B612로 떠나는 순수한 아이로 돌아간 것이다. 친구도 사귀고 견문도 넓힐 겸 지구를 찾은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작별을 고하며 충격적인 충고의 말을 전한다.

“제발...날 길들여 줘!”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찾아볼 친구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단니까.”

『어린 왕자』는 20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27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역 부 이상의 판매 부수를 올린 세계 시민의 교과서이다. 그뿐 아니라 만화와 소설, 아동문학, TV,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오페라, 뮤지컬, 이미지 패러디, 마리오네트, 샹송, 창작 연주, 퍼포먼스, 패션, 광고, 인문 치유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어린 왕자』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탄생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알자스의 어린 왕자 공원, 브라질 파라나의 페투에노 프린시페(어린 왕자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병원, 일본 하코네의 어린 왕자 박물관, 경기도 가평의 뽀띠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어린 왕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구글 뉴스 사이트에는 매일 어린 왕자 관련 출판문화계 기사가 업로드되고 있다. 그토록 엄청난 어린 왕자 관련 작품을 감상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상업성 오락물을 강요하는 영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과 영화적 예술성을 담보한 영화를 관람하면 되듯이 말이다. 생텍스가 인간 조건으로 상정한 관계맺음을 척도로 우정과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잃어버린 내 속의 나를 찾을 수 있다.

어린 왕자와의 만남은 마음의 길들이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멘토이자 『어린 왕자』의 실제 주인공 여우가 들려주는 길들이미의 중요함을 전달하기 위해 생텍스는 코끼리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그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렸을 적 비행사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묻는다: “이 그림이 두렵지 않나요?”. 그림을 본 어른은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과는 아랑곳없이 대꾸한다: “이건 모자잖아.” 그러고는 쓸데없는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까지 해댄다. 그림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어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어른, 이들은 아집과 선입에 빠져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타인의 꿈을 부수어버린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도 어린 왕자는 존재한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이다. 잠자는 어린 왕자를 깨워 길들이면 내가 바뀐다. 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실천에 대한 기본자세를 일깨우고 있다. 오직 길들이기만 알 수

있고, 길들임은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생텍스가 전업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내 마음속 어린 왕자부터 길들여 보자. 생텍스가 애독한 시인 보들레르처럼 우리 마음속 '내가 아닌 나'를 길들여보자. 나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내가 모르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림 1 마크 오스본의 장편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2015) 속 여우와 어린 왕자



그림 2 여섯 살 생텍스의 생애 첫 작품. 오른쪽 뱀 머리의 눈을 보라. 이것은 모자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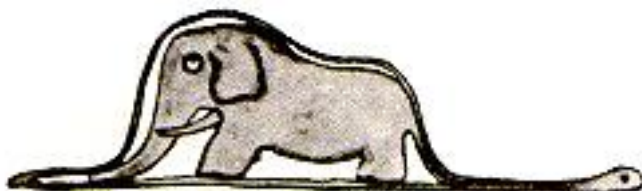


그림 3 모자라 비웃는 어른을 위해 다시 그린 그림.



그림 4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 - 파이프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텍스트가 이미지와 상충한다.



그림 5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 패러디 - '이것은 모자가 아니다'(익명)